

사설

狂信이 부른 대참사

테러는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악(惡)이라 한다.

그렇다. 지난 11일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끔찍한 테러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감지하고 그 사악함에 전율한다. 그 뿐인가. 테러의 성공을 보며 환희적이라는 팔레스타인들과 테러에 대한 '모든 수단의 응징'을 선언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미국의 표정에서 우리는 불길한 증오를 읽는다.

동서양전 이후 세계의 석학들은 21세기에는 전쟁보다 오히려 테러가 인류를 더 괴롭힐 것이라 내다보며 그 어떤 대책으로도 테러를 제압하거나 없애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 예단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에 대 참변을 가져다준 이번 테러도 '분명한 적'을 찾아내기 쉽지 않고, 자살공격 식 수법에 대응할 방 어수단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비열한 테러를 어느 문명국가에서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마땅히 인류의 이름으로 응징되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인류는 지금 지혜롭게 냉정을 되찾아 피가 피를 부

르는 악순환을 막고 테러를 부르는 '증오'가 과연 어디에서 왔으며 그 증오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 일련의 테러사건들이 광신에 빠진 한 종교집단의 소행이었던 것처럼 이번 테러 역시 그들의 소행으로 의심받고 있다.

존엄성을 지나야 할 인간이 어찌서 자신과 세계를 파멸시킬 광신에 빠져 들 수 있는가. 누가 그들의 광신을 부추기는가.

사랑과 자비 없는 종교는 없다. 테러범들의 종교로 지목되는 이슬람교 역시 사랑과 순종의 종교며 어디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옹호하는 가르침은 없다.

그럼에도 왜 종교적 신념으로 피를 부르는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가. 종교의 말을 쓴 정치가 종교의 순수성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전쟁을 치른 적 없는 유일한 종교가 불교다.

앞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 불교가 맡아야 할 책무가 더 커 보인다.

목조건축물 보존에 만전

최근 전국사찰에 있는 목조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조건축물은 그 재료와 구조상 보존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화재와 충해에 취약하다. 이에 관계당국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국가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주요 목조건축물에 대해 5~6년을 주기로 방염(防燬)과 방충(防蟲)을 위한 보존처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방염·방충을 위해 약품처리한 목조건축물에서 몇 가지 우려할만한 현상이 목격되었다. 그 현상이란 단청이 검게 변색하여 원형을 알아보기 어렵게 되거나 단청 안료가 박락되어 바닥에 눈처럼 쌓이거나 아니면 목재에 하얀 이끼같은 것이 피어나고 있으며 문짝을 비롯한 목재에 사용한 금속제 장식물 또한 심하게 녹이 슬어 여닫기도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습도가 높으면 마루바닥이나 문살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촉촉하게 젖어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목재의 부식이 빨라지고 뉘틀림이 일어나는 등 매우 우려할 만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방제에 사용한 약품의 타당성 여부이다. 나무의 종류나 강도에 알맞는 제품으로 그 성분 또한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것이거나 보존과학적인 면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시공방법의 문제이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정품을 사용했는지 여부, 시공 시기나 각 건조물의 특성이나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한 것인지 그리고 작업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시공 후 그 진행과정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했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로, 소요되는 예산의 적정성과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이다.

'소꿉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일(鑿角殺牛)'이 되지 않도록 일단 방염·방충 작업은 중지하고 서둘러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중앙박물관서 지방 이전 유물 5만여점 18년째 방치

불교문화재 등 1만여점 훼손 심각”

정범구 의원 국감서 공개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방의 국립박물관으로 옮겨 관리해 온 불교유물을 포함한 국가유물 1만여 점이 방치된 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10일 밝힌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13만여 점의 유물 중 약 40%에 해당하는 5만여 점의 유물이 18년 전부터 지방박물관에 분산 보관돼 왔으나 관리가 제대로 안 돼 1만여 점의 유물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박물관으로 분산보관 중인 유물은 △광주박물관에 2만906점 △전주박물관에 6천203점 △대구박물관에 5천111점 △청주박물관에 6천711점 △충주박물관에 7천494점 △김해박물관에 6천497점 등 모두 5만2천892점으로, 이들 유물이 수장으로 그대로 상자 째 보관돼 왔다.

정 의원은 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 국립김해박물관과 국립청주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유물 중 보수·복원이 시급한 유물 5천600여점의 목록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동제석가여래입상, 동제아미타여래좌상, 청동석가여래입상,

금동아미타삼존불 등 불교 유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으로 지시로 지난해 11월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들 유물에 대해 점검한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이 감사원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박물관의 경우 금동아미타삼존불은 부식 중이고, 철제아미타여래좌상은 파손이 발생하는 등 25개 상자의 유물 대부분이 '부식' '내부 곰팡이' '전면 박락 중' 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주박물관에서도 두 개 상자를 점검한 결과 상당량의 철기에서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범구 의원은 "82년 지방으로 분산시킨 이후 18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점검했다는 것은 이들 유물에 대한 관리계획 및 예산배정이 전무했음을 의미 한다"며 "관리방안과 함께 이들 유물을 전 시자로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박상준 주임은 "햇빛조차 보지 못하는 불교유물의 경우 불교계에서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중앙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i@buddhapia.com

조계종 문화부장 정각스님(통도사 종회의원·인터뷰 4면), 사설장에 헤자스님(前 문화부장·사진을 임명했다).

또 감사국장에 종홍스님(前 호법부 조사국장), 호법부 조사국장에 태진스님(前 호법부 상임감찰)을 각각 임명했다.

문화부장 정각 스님은 세수 58세 법랍 40년으로, 61년 벽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옥천암 주지와 울산시 사암연합회 회장, 12대 총회위원을 지냈다.

사설장장 헤자스님은 세수 49세, 법랍 34년으로 청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뒤 영남대학교 이사와 도선사 부주지 등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가사불사 입재식 조계사는 10월말에 실시되는 3급 승가고시를 이수한 스님들에게 봉정할 가사를 짓기 위해 신도회관 2층에 가사도감을 설치하고 14일 가사불사 입재식을 봉행했다. 조계사 가사불사는 10월29일 회향하게 되며, 이 기간동안 가사도감에서는 연인원 800여명의 신도들이 참여해 3000여벌의 가사를 제작하게 된다.

승가대 안암학사 활용 논의

종립학교관리위, 25일

조계종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는 25일 종회 사무처에서 종립학교관리위원회를 열고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활용문제를 매듭짓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총무원과 중앙승가대 학인, 동문회가 함께 서명한 합의서를 재검토하고, 안암학사 재계약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승가학원 신임 감사후보 추천도 할 예정이다.

한편 종립학교관리위는 제 151회 임시총회에서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처리건을 이관 받은 바 있다.

김원우 기자

승가학원이사장 정대스님도 안암학사 재계약 여부와 관련한 결정을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 위임한 상태다.

김원우 기자

“소림사 선도랑으로”

중불교수행단 밝혀

한국불교 선 수행체제를 위해 방한한 중국 5개성의 불교지도자로 구성된 중국불교 선수행체합단(단장 석심광) 27명의 중국스님들은 14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고 소림사를 선종사찰로서의 역사성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천성산 천연지구 지정”

보전대책위 토론회 촉구

천성산 습지보전 및 불법입도 개설 반대 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지윤)가 7일 양산농협 강당에서 개최한 '천성산 습지보전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천연기념물, 자연생태계 보전지구, 천연보전지구 지정 등 양산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한결같이 "천연보전지구 등 지정 뿐만 아니라 습원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더불어 장기적이고 친환경적인 임도 복원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미신고 복지시설 5백50곳 조사

복지부 빠르면 올내

보건복지부는 5백50여 개에 달하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빠르면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신고된 시설의 경우 매년 1회 관할 자치단체의 감사와 함께 3년마다 복지부의 운영평가를 받고 있으나, 미신고 시설은 이 같은 운영무명성 검증과정이 없어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작년 6월말 현재 전국 5백55개 미신고 시설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1만1천1

백41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미신고 시설은 8백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도 이에 맞춰 불교계내 미신고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대부도 자제정사, 동지청소년의 집, 선재동자원 등을 비롯해 20여 개 정도의 미신고 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관할 지자체에서 이들 시설에 대해 지원의 폭을 늘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목재에 치명적인...

광주전남 재가지도자연수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2~23일 전남 대문사에서 광주·전남 지역 사찰신도회 및 신도단체 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21세기 화두인 생명·생태·환경문제에 대한 불교 사상적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불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 걸맞는 실천 프로그램을 논의한다.

한명우 기자

당신도 이미 깨달아 있습니다!

「대중견성론」 마침내 출간!!!

붓다의 삶과 깨달음의 원리를 복원함으로써 만민건성 - 즉 신건성의 신비를 밝혀내다!

1집 『초기불교 개척사』
- 대중견성의 변경을 열어가는 붓다와 초기 민중들 -

교계 최초의 초기불교 개척사 본격 연구!
최고의 남방장경 바알라나까야에 대한 직접 분석을 통하여 복원해낸 수천·수만 대중들의 순교를 넘어선 심보현신의 생동하는 역사 현장- 우리시대 인류건성운동의 새로운 물결이 융틀임하고 있다.

● 불교 김재영 저음 / 신국판 양장 / 값 22,000원



2집 『대중견성운동』
- 우리 시대 인류건성운동의 불교적 패러다임 -

『불경』에 등장하는 12,975명(+여)의 견성대중들! 초기불교의 견성사건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재현하는 깨달음의 원형, 깨달음의 삶들! 이것은 실로 깨달음에 관한 우리들의 깊은 허위의식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다.

● 불교 김재영 저음 / 신국판 양장 / 값 18,000원



출판기념모임 초대

· 때 / 2001년 9월 22일 (토) 오후 5시
· 곳 / 조계사 교육문화회관

· 서명 / 목정배 교수(한국불교학회 회장)
· 연락 / 청보리회 (011-662-5335)